

韓國建築의 特色에 對하여

朱 南 哲

韓國의 傳統的인 建築의 特色이 무엇인가에 對하여, 그 간 수편의 論文이 꼭 同一論題로서 發表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의 커다란 主題를 다루는 가운데, 또는 적은 主題를 다루는 가운데 발표되어 왔다. 이들이 발표되기는 불과 10여년 안팎이고, 이보다 앞서가는 것으로는 몇몇 일본인 학자들의 논문들이 있다. 본인은 建築士誌의 청탁으로, 그간의 발표된 것과 本人이 그동안 생각해 온 바를 종합하여, 論文의 形式을 떠나서, 自由롭게 일단 정리하여 보고저 한다. 따라서 일체의 註와 참고문헌은 밝히지 않는다. 이점 독자와 논문발표자의 양해 있으시기 바란다. 다만 이 두서없는 글이 현대건축공간을 창조해 나가시는 建築士 여러분 중의 그 어느 한분에게라도, 조그마한 도움이 될 것을 바라며, 삼가 序를 대신한다.

1. 韓國의 建築은 木造架構式構造였다.

우리의 傳統的인 建築은 木造建築으로 일관 되어 온바, 이는 이웃나라인 中國建築과도 같은 바이다. 물론 우리의 建築이 中國의 建築영향으로 이러한 共通點이 이루어졌다 하겠으나, 우리의 木造建築은 中國의 建築과는 相異한 點이 많다. 우선 Scale이 다르고 拱包構成方法 등이 또한 다르다. 기타 수다한 要素들이 다른 관계로 우리의 木造建築은 우리나라대로의 特色을 지니고 있다.

또 우리의 建築構造가 木造建築으로만 限定되어 온 것은 아니다. 石窟庵이나 石永庫처럼 石造의 Dome과 Vault가 있었고 宋山里古墳에서 처럼 塼에 의한 Dome, Vault構造도 있었다. 또 城門、石橋 등에서 쓰여진 arch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의 住建築物들인 住宅、宮闕、寺刹、書院 등의 建築構造를 이룬 것은 아니었다. 고로 우리의 傳統的인 建築은 木造建築인 것이다.

筆者：梨花女大.美術大 助教授

다음 木造建築에 있어서 細部的으로 생각하여야 할 것은 大部分의 部材가 이음과 접합에 의하여 못이나 기타의 鐵物使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철근 콘크리트造와 같은 一體式構造와 다른 特色을 이루고 있다.

2. 모든 建築은 基壇을 形成한다.

一般으로 庶民住宅의 土壇으로 形成된 基壇을 除外하고는 거의 모두가 花剛石基壇을 形成하고 있다. 적게는 石塔의 基壇이 그것이며, 크게는 宮闕, 寺刹의 基壇이 또한 그것이다. 물론 일단 築臺를 쌓고 基壇을 다시 形成하기도 한다. 華嚴寺나 浮石寺 등에서 또 佛國寺에 있어서도 築臺를 볼 수 있다.

建築에 있어서 基壇의 形成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다. 古代 그리스도의 parthenon神殿을 위시한 그 많은 神殿들과 Roma時代의 諸神殿 및 宮闕建築, 이것에서 이어지는 그후의 많은 宗教建築들이 그러하다. 최근년에는 오스트랄리아의 시드니·오페라하우스에서 Utzon 이 거대한 基壇部를 形成하지 않았는가?

基壇이 없는 建築은 참으로 삭막하다. 더우기 우리의 木造建築은 人間的인 尺度로 形成되었기 때문에 基壇部가 없었다면 얼마나 불품없었을까?

또 築臺의 역할도 基壇部만큼이나 重要하다. 만약 佛國寺에서 靑雲, 白雲의 두 石橋로 연결되는 石築部가 빠져 버린다면 그 몇이나 이 佛寺로 다시 와보고 싶어할까?

3. 기둥에는 배흘림과 민흘림이 있다.

韓國의 기둥은 圓形기둥과 四角기둥이 主軸을 이룬다. 단지 亭子같은 特殊한 建築 또는 寺刹의 활주와 같은 것에서 六角이나 八角을 찾아볼 수 있다.

一般으로 宮闕이나 寺刹 등의 重要한 建築에 있어서의 圓形柱로 構成되며 이 圓形柱에는 배흘림기둥, 민흘림기둥, 圓筒形기둥이 있다.

배흘림기둥은 Parthenon神殿에서 처럼 Entasis를 둔

것으로 現存遺構로서 추정할 수 있는것은 高麗時代 이전 부터 使用되지 않았나 한다. 高麗末의 鳳停寺極樂殿, 浮石寺無量壽殿등은 이의 좋은 實例가 되며 李朝에 이르러 서도 無鳥寺極樂殿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배흘림이 나 랐한 두개의 수직선은 중앙이 들어가 보이는 錯視現像 (Optical Illusion) 을 교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周知 의 사실이다.

민흘림기둥은 大部分의 李朝建築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는 기둥의 上部가 下部보다 가는(細)것을 말한다.

円筒形기둥은 上下가 같은 것으로 이는 前述한 바와같 이 錯視現像이 일어남으로 우수한 design은 못된다 하겠 다.

4. 隅柱의 솟음과 안쏠림이 있다.

水平線은 가운데가 쳐져보이는 錯視現像이 일어나기때 문에 가운데를 일부 높게한 parthenon神殿의 錯視現像 을 교정한 것과는 반대로, 제일 양단의 기둥을 솟게 하여, 처마곡선과 調和되게 하였다. 韓國의 木造建築은 물론石 塔에서도 이를 볼 수 있다. 또 이는 평면에서도 적용하 여 四隅가 직각보다 약간 적은 銳角으로 하여 立体的으로 지붕처마곡선과 조화되도록 한 것은 우수한 design 이 다.

또 기둥들은 上部를 中心軸을 향하여 약간씩 안으로 기울어지게 하였다. 이런 것은 建築物에 安定感을 주고, 또 建築物의 上部가 밖으로 기울어져 보이는 錯視現像을 교 정한 Parthenon神殿에서와 같은 design이다.

5. 栱包帶가 重要な 視覺要素가 된다.

一般住宅을 除外한 大部分의 建築에 있어서 栱包帶는 重要な 位置를 차지한다. 이는 韓國의 建築이 大部分 柱 心包樣式과 多包樣式으로 일관해 왔고, 설사 翼工系의 建 築이 있었다 하나 이역시 正面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함 으로서 基壇, 기둥, 지붕과 더불어 四大의 시각적 요소 가 되었다.

6. 처마곡선이 유연하다.

韓國建築의 처마곡선은 유연하여, 日本建築에서 처럼 날카로운 맛이 없다. 이는 지붕을 구성할 때, 平面上 四 隅가 돌출하고, 四面의 中央部가 들어가게 하는것과 지 붕 배귀의 처마를 틀리게 구성하는데서 이루어 진다.

또한 배귀에 이루어지는 석가래의 배열 방법은 日本建 築과는 달리 소위 “선자서까래”로서 構成함으로 단절 되 지 않은 리듬(Rythm)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처마곡선이 아름답다 하지만 이것은 용마루의 선과 조화되는데서 오는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처마 곡선에만 力點을 두어 지붕마루의 선을 몰각하는 사례가 많음은 다 시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7. 검은 기와지붕이 있다.

우리의 건축은 民家の 草家を 제외하고, 또 특수한 靑 기와지붕을 例外로 하면 모두가 검은 기와지붕을 가지고 있다.

물론 지붕의 형태는 맞배지붕, 팔작지붕, 우진각지붕, 팔각지붕등 많은 종류가 있으나 지붕면이 建築全体에 주 는 視覺的 効果는 아주 큰 것이기 때문에 검은 기와의 지 붕면은 중요한 것이다.

처마끝부터 용마루까지의 높이는 대략 기단의 5배 정도. 또한 柱高와 栱包帶와의 高를 습한 수치와 비슷하다.

또 지붕은 많은 기와의 골과 마루의 연속으로 강한 획 일성반복에 의한 통일감을 이루어 한층 중요한 시각적 요 소가 되고 있다.

8. 박공면이 측면이 된다.

韓國의 건축, 이는 특히 東洋系에서는 共通的인 것이 지만, 西洋建築이 박공면이 正面이 되는것과는 반대로 박 공면은 항상 측면이 된다.

박공면을 바라보고 들어가는 집은 호두각 집이라 하여 凶家로 생각하여왔다.

그러나 例外로 景福宮의 慶會樓를 들 수 있다.

박공면이 측면이 되는것은 平面上 또는 空間의 성격상 큰 특징을 이룬다. 즉 内部空間의 깊이가 얇고 횡으로 퍼 진것이 되며, 건축물에 어푸로취 할때 큰 시각적 비중을 차지 하게 된다. 西洋의 建築에서는 正面의 폭이 좁은데 反해 깊이 있는 内部空間을 構成하고 있다.

9. 正面의 大部分이 窓戶로 처리된다.

現存遺構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우리의 建築은 正面 거의 모두를 窓戶로 처리하고 있다. 浮石寺祖師堂이나, 수리공사를 끝낸 鳳停寺極樂殿등에서 처럼 中央의 戶와 左右의 살窓을 둔 비교적 적은 面積의 窓戶를 除外하고 는 大部分의 宮闈의 殿閣, 寺刹, 住宅, 書院 등등의 建 築物들은 正面에 거의 全部가 窓戶로 되어 있다.

窓戶의 構成方法은 그 開閉法과 그 살문양에 따라 여 러종류로 나누이나, 문제는 이들 窓戶의 살들이 全体 建 物形態에 주는 視覺的 效果가 大端히 크다는 것이다.

建築物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창살과 배면 의 창호지와 더불어 하나로서 큰 面으로 우리 시야에 들 어 오지만은 접근함에 따라 섬세한 창살의 構成이 우리 의 視野에 들어 오므로서 아기자기한 맛을 더해 준다.

10. 韓國建築의 色彩는 그리 현란하지 않고 온화 하다.

韓國建築에 있어 色彩의 적용은 三國史記의 記錄이나 絳國大典, 또는 大典會通의 記錄에 나타난 一般民家에서 의 制限規定에 따른 결과도 있겠지만, 비교적 현란하지

않은 色彩로 이루어지고 있다.

宮闕建築의 丹青이나, 寺刹建築의 丹青에 있어서도, 기둥高에 해당되는 部分은 單一色으로 처리되고 木部를 단지, 柱頭 以上 拱包帶 에서 여러가지의 色彩와 문양으로 된 丹青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内部空間에 있어서도 拱包帶와 天井部에서 局한 된 同一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一般民家와 多數의 一般建築에서는 전혀 丹青을 하지 않음으로서 材料가 가지는 自然스러운 色彩를 보여 준다.

11. 座式生活에 적합한 建築이다.

高句麗의 古墳壁畫나, 舊唐書등의 記錄에서 알 수 있는 것 처럼 우리의 건축은 古代로부터 座式生活을 위한 構成이었다. 따라서 内部空間의 構成은 坐高를 基準으로 이루어진다. 家具의 높이나, 窓戶의 밑인방 높이(문지방) 등이 모두 이에 따라 形成되는 것이다. 또 이는 바닥의 위치가 垆地로부터 한층 높아야 되는 원인도 되어 기단의 형성과 더불어 중요한 시각적 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자연히 房안에 앉어 굽어보는 庭園을 필요로 하게 된 듯하다. 우리의 大部分의 庭園이 그 속을 소요하는 것 보다는 앉아서 완상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하얀 모래로만 깔린 마당이라는 것도 기실 庭園의 한 형태이며, 우리의 정원인 것이다. 樂善齋의 後庭에서 처럼 층층히 화강석으로 단을 쌓아 올라간 것과 여기 저기 세운 煙突과 石蓮池, 귀석 함등은 들어 열개로 된 窓戶를 들쇠에 매달고, 문지방에 턱을 고이고 앉아 바라보던데서 연유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이 곧 앉아 완상하는 우리의 정원이며 이는 坐式生活에서 오는 특성이다.

12. Positive space와 Negative space의 Alternative Repetition에 의한 空間構成을 하고있다.

우리의 住宅을 예로 들어보자. 사랑채, 안채, 別堂 등을 여기저기 두고, 이 사이 사이는 空牆과 行廊채로 막는다. 이로서 Positive space가 된 채와 이주위의 Negative Space, 다시 이를 둘러싼 空牆과 行廊채로 이루어지는 Positive space, 또 이 주위의 Negative space.이 처럼. Positive Space와 Negative space의 교차반복으로서 全体空間은 構成된다. 이는 비단 住宅에 局限된 것이 아니고 宮闕, 書院, 佛寺등 대부분의 建築空間이 그렇다.

또한 이와같은 構成은 空間의 變化와 연속성을 강하게 느끼도록 해준다. 하나의 큰공간에서, 적은공간으로 다시 적은 공간에서 큰공간으로, 공간은 연속되면서 어푸로 취할때의 변화는 공간인지에 커다란 흥미를 준다.

부석사나 봉정사를 보자, 이들은 멀리서 전체가 보인

후 가까이 이르러 樓門이 보이고 또 樓門의 밑 좁은 空間을 빠져나가면, 큰 空間이 다시 전개된다. 또 法住寺나 通度寺에서 처럼 멀리 一柱門을 바라보며, 접근하여 이를 지나면 다시 天王門이 나타나고 이를 지나 捌相殿, 그리고 보다 장대한 大雄寶殿, 이처럼 韓國의 建築空間은 적은 空間과 큰 空間의 교차, 空間情緒의 변화와 空間의 연속적인 흐름에 그 特色이 있다.

13. 어떠한 中心軸을 고려한다.

韓國建築의 配置計劃에 있어 非可視的인 어떤 中心軸을 基本으로 建築한다고 하는 것은 펍으나 오랜 세월동안 이루어진 特性이다.

이의 시발은 어느때인지 확연하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高句麗 小獸林王 2年(AD372) 이후로 생각된다. 이것은 바로 淸岩里建築址의 配置計劃으로서 이는 中國의 天文五行思想에 연유된 것이 있다.

즉 南北을 主軸으로 中央에 8角形의 佛塔址가 있고 四東西南北에 各各 建物의 方形基壇이 발견되었다. 이 특이한 配置는 바로 漢代의 天文占星思想에서 유래한 것이며 「史記」의 「天宮書」에 나타나 있는 五星座가 黃道를 中心으로 하여 東西南北에 各各 東宮, 西宮, 北宮이 配置된 후 北側에 中宮이 또한 配置된 것과 일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어떤 軸을 中心으로 配置計劃하는 方法은 百濟, 新羅에 이어진다. 그것은 百濟軍守里寺址나 新羅의 皇龍寺址 芬皇寺址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三國時代의 이러한 어떤 中心軸에 對한 要素는 高麗에도 계승되어 開城의 滿月臺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李朝의 開國과 더불어 漢陽의 開都에 있어서도 분명히 景福宮을 있는 南北의 主軸과 이와 直交되는 現鍾路를 中心으로 都市計劃을 하였고 적게는 景福宮 自体만 하더라도 南北을 主軸으로 重要한 殿閣들을 配置한 것을 알 수 있다.

李朝時代에는 비단 王宮만이 아니고 많은 佛寺나, 鄕校, 書院 등등에서도 中心되는 主軸과 이와 直交되는 副軸을 中心으로 配置計劃을 하였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또 住宅에 있어서도 뚜렷한 主軸은 없다 하더라도 이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配置計劃上의 어떤 中心軸이 곧 그 建築配置의 對稱軸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韓國建築의 配置는 오히려 非對稱的인데 특징이 있다. 非對稱的이 면서도 均衡을 이루고 있어 소위 Unsymmetrical Balance를 이루고 있음이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한가지 언급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건축만이 아니고 거의 세계적으로 配置計劃에는 어떤 軸이 中心이 된다하여 이것이 우리 韓國의 特性이 될 수 없다 하여 무시할 수는 없다. 이것은 하나의 共通的인 特性인 것이다.

14. 自然과 調和되는 空間이다.

前述한 바와같이 中國의 天文五行思想에 연유된 어떤 中心軸의 形成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建築은 風水地理思想에 依하여 配置計劃하였었다.

風水地理思想은 新羅末期에 대두된 것으로 韓國에 있어서 元祖는 道詵禪師(826~898)로 알려져 있다. 道詵은 唐末 一行禪師가 形成한 中國의 堪輿說과 한국고래의 사마니즘의 占定要素, 佛敎의 善根功德思想, 道敎의 陰陽五行思想등을 結合 소위 風水圖讖說을 이루었다. 이 思想은 高麗의 王都選定은 물론 李朝의 王都選定과 허다한 建築配置 및 묘지선택에 까지 뿌리깊게 作用하여 왔다.

이는 미신적인 요소도 있다 하겠으나 근본사상은 自然과의 調和에 뜻을 둔 것이었다.

이러한 思想이 韓國人의 意識構造에 깊이 뿌리박힌 결과인지 몰라도 모든 建築의 配置가 이를 뚜렷이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한 우리의 先人들이 읊은 時調에서도 自然과의 調和를 꾀한것을 알 수 있다.

십년을 경영하여 초가 한간을 지어내니
반간은 청풍이요, 반간은 명월이라.
청산은 드릴데 없으니 둘러놓고 보리라.

이 時調에서 알 수 있는 것은 李朝人들은 비록 초가한 간일망정 바람소리와 달빛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앞에 멀리 보이는 푸른산은 하나의 큰 自然景觀으로 조망하고저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自然과의 調和는 韓國窓戶가 이룬 特質에서 오기도 한다. 韓國의 窓戶는 울거미와 살을 찢후, 窓戶紙를 房안쪽으로 바름으로서 光과 音의 은은한 投影을 이룬다.

집앞 넓은 마당에는 큰 느티가 있어 한여름 매미를 부르고, 뿔뜨락 감나무는 까치를 불러, 조용한 室內를 울려 주고 窓앞에 심은 벽오동은 괴괴한 달밤에 하얀 창호지 위에 그림자를 던져 한쪽의 묵화를 이룬다. 그리고, 고요한 밤 처마끝 낙수소리는 적막을 안겨다 준다.

또 우리 先人들은 들어열개라고 하는 독특한 窓戶의 開閉法으로 自然과의 調和를 꾀하였다. 前述한 바와같이 座式生活에 적합한 우리의 바닥(床)은 地面보다 한층 높임으로서 大地와의 分離가 이루어지나, 窓戶를 들어열개로 들뢰에 매달므로서 自然空間과 人工空間과는 쉽게 同和되는 것이다.

이상의 自然과의 調和는 日本의 庭園에 있어 造山, 造水로 자연을 축소하여 人工自然을 만드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結語

이상으로 우리 韓國建築의 特性을 두서없이 생각하여 보았다. 이 韓國建築의 특성은 곧 우리 韓國建築의 傳統性으로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韓國傳統性계승과 표현에 대한 方法論 모색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끝으로 본고 이외에도 學界 여러분의 새로운 特性 발굴과 기탄없는 論議가 전개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團合된 國民의 모습으로
北傀의 野慾을 事前 封鎖하자